

청대 재자가인 소설 『호구전(好逑傳)』의 서사 구조적 특징 연구¹⁾

박주연 * 주준영 **

-차 례-

1. 서 론
2. 『호구전』 서사 구조의 주요 맥락
 - (1) ‘아버지의 위기’ 모티프의 서사적 기능
 - (2) 복선 효과의 연쇄적 중첩과
 액자식 서사 구조의 형성
 - (3) ‘선간후취’ : 플롯 전개에의 기본 동력
3. 결 론

* 제1저자,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4단계BK21 중일어문학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 청대(清代) 시기를 전후하여 등장한 재자가인 소설 중 하나인 『호구전(好逑傳)』의 서사적 구조를 분석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호구전』의 서사 구조를 분석한다. 사전 작업으로는 『호구전』의 서사 구조 형성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요소들은 남녀 주인공이 공유한 아버지의 위기, 여러 복선적 장치의 반복과 중첩을 통한 인물 형상 묘사의 심화, 그리고 작품의 주제와 플롯 전개에 핵심적인 개념으로 작용하는 '선간후취(先奸後娶)'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간후취'의 개념은 『호구전』 전체 서사에 동력을 부여하며, 더 나아가서 명대 말기에서 청대 초기에 등장한 재자가인 소설의 장르적 성격을 재정의할 여지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첫째로, 두 남녀 주인공이 순차적으로 '아버지의 위기'를 겪으며 인물 개성을 발휘하고, 서사 공간의 이동과 결속, 주변 인물 형상 부각과 관계의 형성을 통해 서사 전개의 기반이 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로, 철중옥이 어려움을 겪은 위기를 도와주고 다시 위패가 철중옥에게 보답하는 혐의 서사의 틀 안에서, 철중옥과 수빙심이 위패의 고난을 재현하는 애정 서사가 복선적 장치의 연쇄적인 활용을 통해 전개되는 과정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서사의 구조를 분석한다. 셋째로, 『호구전』이 예교와 애정의 충돌 상황을 '선간후취'의 기제를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변주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애정 통속 서사의 형성 과정에서 단순히 통시적인 과도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해왔던 재자가인 서사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정치성을 내재한 애정 서사의 또 다른 이면을 노출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천편일률적 모식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왔던 다소 경직된 기존의 명말 청초 재자가인 서사 연구 영역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를 견인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했다.

주제어 : 『호구전(好逑傳)』, 재자가인, 서사구조, 협의소설, 애정소설, 혼인, 강
희제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 청대(清代) 시기를 전후하여 등장한 재자가인 소설의 하나인 『호구전(好逑傳)』의 서사적 구조를 분석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시경』(詩經)의 유명한 구절인 ‘窈窕淑女, 君子好逑’를 연상하게 하는 표제를 가진 작품 『호구전』은 총 18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 『의협호구전(義俠好逑傳)』, 『협의풍월전(俠義風月傳)』, 『제이재자호구전(第二才子好逑傳)』 등이 있다. 작가의 이름은 명교중인(明敎中人)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청대 옹정과 강희 시기에 접어들면서 재자가인 소설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형상과 성격 묘사의 변화 양상을 대표한다.¹⁾

또한 이 작품은 대략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중반 사이에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중국 재자가인 소설 유입이 한국 고전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한 주요 사례로 언급한 선행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²⁾ 그리고 한글 고어로 번역된 『호구전』은 해당 작품에 대한 조선 사회의 관심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고어 번역본에 대한 작품의 번역적 특징에 대한 연구도 이미 존재한다.³⁾ 한편 『호구전』은 루쉰(魯迅)이 말한바와 같이 ‘해외에서 더 유명한(在國外特有名)’ 작품으로, 중국 고전 서사 중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서구에 번역 출판한 독특한 사례의 하나이며, 이를 18-19세기 서구에 전해진 중국 고전 서사의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개한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⁴⁾

『호구전』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앞서 소개한 국내외 유입과 전파, 번역 및 영향 관계를 주제로 한 것과 함께, 해당 작품의 장르적 성

1) 向 概, 『世情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8, 213쪽.

2) 박영희, 「17세기 才子佳人小說의 수용과 영향 : <好逑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4집, 1998.

3) 김명신·민관동, 「『好逑傳』의 유입과 번역적 특징」, 『中國小說論叢』, 제37집, 2012.

4) 최형섭, 「유럽에 전해진 중국 소설(1735-1840) -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제102집, 2020.

격과 이 범주에 따라 작품의 주동 인물의 개성을 어떠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한 연구⁵⁾가 주종을 이룬다. 또한 국외의 연구로는 장르적 귀속 문제⁶⁾ 및 전통 윤리와 애정의 충돌이라는 작품의 주요 주제 축선에 대한 학술적 정리를 시도⁷⁾하는 사례들을 다수 살펴볼 수 있다. 국내외의 연구를 종합한 맥락은 작품의 서사 형태, 번역가의 번역 전략 및 원전 텍스트의 비교가 주종을 이룬 20세기 이후 『호구전』의 연구 경향⁸⁾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는 주로 재자가인소설이라는 장르적 성격에 국한하여 해당 서사의 통시적 변천 과정에서의 변화 양상의 일단을 드러내는 측면을 주요 기반으로 한다. 아울러 작품의 사상성, 남녀 주인공의 인물 개성에 대한 단상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⁹⁾를 탈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 작품은 서구권으로 전파된 사실과 특히 작품의 주제 사상과 관련한 괴테의 언급 사례 등이 이전 시기 동서양의 문화 교류, 나아가 유럽에서의 중국학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¹⁰⁾한 점이 해당 작품 연구를 수용과 전파 측면에 국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호구전』 서사의 구조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러한 사전 작업으로 『호구전』 서사 구조 형성

- 5) 김명신, 「『清代 俠義小説의 研究概況』, 『中國小説論叢』, 제14집, 2001, 김명신, 「『好逑傳』主人公의 俠義의 性格에 대한 小考」, 『中國小説論叢』, 제15집, 2002, 김명신, 「『好逑傳』과 『박씨전』의 여성영웅 연구」, 『中國小説論叢』, 제29집, 2009 참조.
- 6) 常雪鷹, 「論清代小説『好逑傳』的類型歸屬」, 『北京教育學院學報』, 第32卷 第2期, 2018.
- 7) 郭海峰, 「試論『好逑傳』中“情”與“禮”的碰撞」, 『黃岡師範學院學報』, 第37卷 第4期, 2017, 汪德蓋, 「『好逑傳』反映了明代後期“情”與“理”的鬥爭」, 『昭烏達蒙族師專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1991年 第1期, 宋常立, 「試論『好逑傳』」, 『明清小説研究』, 1985年 第2期 등
- 8) 張浩·李躍忠, 「論20世紀以來的『好逑傳』研究」, 『常州工學院學報(社科版)』, 第39卷 第4期, 2021.
- 9) 김명신, 「『好逑傳』主人公의 俠義의 性格에 대한 小考」, 『中國小説論叢』, 제15집, 2002, 152쪽.
- 10) 최형섭, 앞의 논문, 151쪽.

의 주요 실마리로 남녀 주인공이 공유한 아버지의 위기, 여러 복선적 장치의 반복과 중첩을 통한 인물 형상 묘사의 심화, 그리고 작품의 주제와 플롯 전개에 핵심적 관념으로 작용하는 ‘선간후취(先奸後娶)’가 전체 서사에 부여하는 동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남녀가 먼저 정을 통하고, 뒤이어 혼인을 한다는 뜻의 ‘선간후취’에 대해 현대인과 달리 생각했던 고대 중국인들의 관념은, 현대의 시선으로는 생경해 보이는 『호구전』 남녀 주인공의 행동양상을 지배한다.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이 ‘선간후취’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남녀 주인공의 과제는 내적으로는 그들의 욕망과, 외연적으로는 애정 성취를 억압하고 방해하는 세력과의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호구전』 18회의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된다.

또한 ‘선간후취’의 관념은 『호구전』, 나아가 명대 말기에서 청대 초기에 등장한 재자가인소설의 장르적 성격을 재정의할 여지를 제공한다. 『호구전』에서 ‘선간후취’의 관념은 사회제도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황제와 황후의 개입과 검증, 애정 성취 과정의 조력을 이끌어내는 근본적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해 황제 부부는 무수한 사회적 권력 기제가 방해했던 재자와 가인의 만남의 옹호자, 수호자의 형상을 획득한다. 재자가인서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황제의 개입에 또 다른 유형과 사례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명청재자가인소설에서 황제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애정의 중재자이자 대단원의 명분을 제공하는 위상을 창조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애정통속 서사의 형성 과정에서 단순히 통시적인 과도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해왔던 재자가인 서사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정치성을 내재한 애정 서사의 또 다른 이면을 노정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천편일률적 모식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해왔던 다소 경직된 기존의 명말 청초 재자가인 서사 연구 영역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를 견인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고자 한다.

『호구전』의 주요 판본으로는 현재 중국 대련도서관(大連圖書館)이 소장하고 있는 “능운각본(凌雲閣本)”과 영국 박물관 소장본 등이 존재하는데, 연구에서 활용한 『호구전』 텍스트 원문은 중국 소장본을 영역한 판본¹¹⁾과 이를 토대로 한 여러 통행본¹²⁾을 대상으로 참고하였다.

2. 『호구전』 서사 구조의 주요 맥락

2.1. ‘아버지의 위기’ 모티프의 서사적 기능

『호구전』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작품 소개에서 대부분 언급한 바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의협심 넘치는 남성 철중옥(鐵中玉)이 재자(才子)의 형상을, 언제나 상대방의 불순한 의도를 간파하는 지혜를 갖춘 여성 수빙심(水冰心)이佳人(佳人)의 형상을 대표한다. 18회의 편폭으로 구성된 『호구전』 서사는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애정을 느낀 두 남녀가 강압적으로 다른 이와 혼인을 맺게 하려는 방해와 ‘선간후취’라는 선입견을 극복하고 두 사람의 혼인으로 대단원을 성취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철중옥에 대한 기본적인 인물 묘사는 다음과 같다.

전조(前朝) 북직예(北直隸) 대명부(大名府)에, 수재 한 사람이 살았는데, 성은 철, 이름은 두 글자로 중옥, 자는 정생(挺生)이라 했는데, 타고난 풍채와 자태가 준수하여, 마치 미인과 같아, 안에서는 별명으로 철미인(鐵美人)이라 불렀다. ¹³⁾

해당 대목에서는 명나라 시기의 지방 행정 구역 명칭인 ‘북직예 대명

11) (清)名教中人, 『古本小說集成(581) : 好逑傳 影印本』,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0.

12) (清)名教中人, 『好逑傳 : 中國禁毀小說百部』, 中國戲劇出版社, 2000.

林辰 主編, 『才子佳人小說集成 2: 俠義風月傳』, 沈陽 : 遼寧古籍出版社, 1997. 등.

13) 話說前朝北直隸大名府, 有一個秀才, 姓鐵雙名中玉, 表字挺生, 生得豐姿俊秀, 就象一個美人, 因此裏中起個渾名, 叫做鐵美人。

부(지금의 허베이성 한단시 일대)'와 이전 왕조를 뜻하는 '전조'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여 서사의 창작시기를 가늠할 수 있으며, 또한 시공간적 배경을 설정한다. 그리고 철중옥의 용모가 매우 수려함을 설명하고 있다. 뒤이어 그의 성품 역시 온화하면서 냉철하고 집요한 면이 있으며, 상대의 귀천이나 부귀 가난을 가리지 않는 인격적 풍모를 언급하고 있다.¹⁴⁾¹⁵⁾

철중옥은 상나라 주왕에게 간하다 목숨을 잃은 비간의 글을 읽다가 충직한 부친이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경사(京師)로 부친을 찾아간다. 길을 가는 도중에 권세가에게 약혼자를 잃을 위기에 처한 위패(韋佩)를 만나게 된다. 서울의 아버지 집에 도착한 철중옥은 이미 아버지가 강제로 한원(韓愿)의 딸¹⁶⁾을 첩으로 맞이하려는 대쾌후(大夫侯)를 고발한 일로 누명을 쓰고 투옥된 사실을 알게 된다. 철중옥은 한 손에는 구리망치(銅錘)를 들고, 한 편으로는 황제의 성지(聖旨)를 들고 대쾌후에게 사로잡힌 한원 가족을 구출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누명은 황제의 성지로 벗겨지고, 오히려 상차하게 된다.

『호구전』 1-2회의 대부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이 서사는 철중옥의 인물 개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소를 감지하게 한다. 첫째, 비간의 사례를 읽으며 부친의 정치적 위기가 도래할 것을 감지하는 철중옥의 예지력이다. 그는 아버지와의 물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아버지의 성품에 비춰 곧 비간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것임을 짐작한다. 둘째, 이 과정에

14) 若論他人品秀美，性格就該溫存。不料他人雖生得秀美，性子就似生鐵一般，十分執拗。又有幾分膂力，有不如意，動不動就要使氣動粗，等閑也不輕易見他言笑。倘或交接富貴朋友，滿面上霜也刮得下來，一味冷淡。卻又作怪——若是遇著貧交知己，煮酒論文，便終日歡然，不知厭倦。更有一段好處：人若緩急求他，便不論賢愚貴賤，慨然周濟；若是諛言諂媚，指望邀惠，他卻只當不曾聽見。所以人多感激他，又都不敢無故親近他。

15) 북직예 대명부에 거주하는 수려하고 의협심 넘치는 철중옥의 개성은 일정부분 『수호전(水滸傳)』에 등장하는 호걸 중 노준의(盧俊義), 연청(燕淸), 무송(武松) 등의 형상을 연상하게 한다. 따라서 『호구전』의 남성 인물 철중옥과 그의 서사는 일정부분 『수호전』의 미메시스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한 상세한 규명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16) 위패의 약혼자와 동일인이다.

대한 철중옥의 심리 서술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 입장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호구전』 작가의 정치적 견해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측면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정도라 하여도, 또한 어느 만큼의 권세가 있어야, 위로는 군주를 깨우치고, 아래로는 몸을 온전케 하여, 바야흐로 재주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바르고 끝기만 하여, 꺼리고 피할 줄 모르고, 섬기거나 더하지 못하여, 매양 군주를 노엽게만 하면, 군주가 과실을 범하게 하고,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니 비록 충성한다 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¹⁷⁾

셋째, 철중옥의 예지력, 사회적 입장, 나아가 위기와 문제 해결방식을 통해 그의 복합적인 인물 개성을 확인하게 한다. 그는 간언하여 죽음에 이르는 비간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군주의 과실을 돌이키지 못한 점, 비간 자신의 목숨을 잃은 점을 바탕으로 ‘아무 효용성이 없는 행동’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비간과 같은 무의미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권유하기 위해 경사로 출발한다. 그 과정에서 약혼자를 빼앗긴 위패를 만나게 되는데, 위패의 위기는 곧 자신이 염려했던 아버지의 위기가 실현된 것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갖는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철중옥이 택한 수단은 구리망치와 성지가 상징하는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사회적 명분의 결합이다. 이 부분에서 해당 서사는 철중옥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자신의 완력에 의지하는 협객이나 사회적 명분을 중시하는 서생 모두를 겸비한 복합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밝힌다.

‘아버지의 위기’라는 서사의 모티프는 따라서 구성상 설자(楔子)의 역할을 하는 1-2회의 위치에서 남성 주동 인물 철중옥의 인물 개성의 다양성을 부각하는 서사적 효과를 구현한다. 또한 서사 공간적 측면에서 철중옥을 복직예 대명부에서 경사로 이동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며,

17) 雖是正道，然也要有些權求，上可以悟主，下可以全身，方見才幹；若一味耿直，不知忌諱，不但事不能濟，每每觸主之怒，成君之過，至於殺身，雖忠何益？

궁극적으로 3회를 통해 수빙심과의 공간적 연결고리를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한원부부와 위패와의 만남을 통해 서사 인물의 범주를 확장하여 이후 서사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지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모티프의 활용 양상은 3-4회에 등장하는 여성 주동인물 수빙심의 경우와도 비교해 볼 여지가 있다. 3회 역시 병부시랑 수거일(水居一)의 딸 수빙심의 내력과 아름다운 외모와 재능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녀의 능력은 ‘수염 달린 남자를 능가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¹⁸⁾

앞서 1회에서 철중옥은 혼인을 권유하는 부모의 제안을 혼인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이유로 거절하여, 20세가 되도록 혼인하지 않았다는 서술이 나오는데¹⁹⁾, 수빙심은 무남독녀의 신분으로 집안일을 전담하느라 혼인이 늦어진 것으로 서술한다.²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수빙심과 아버지 수거일의 강한 결속력은 수빙심이 혼인하지 않은 채 아버지의 공간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수거일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은 수거일의 동생 수운(水雲)이 형의 재산에 대한 욕망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수운에게는 수거일과 수빙심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 즉 수빙심의 혼인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등장하게 되고, 이는 설득력을 갖는다. 수빙심이 출가하게 되면 그는 자신이 형의 상속자가 되거나, 또는 자신의 아들을 형의 양자로 입적하게 하여 우선적인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거일과 수빙심의 입장에서는 수빙심의 혼인 시기를 늦추어야

18) 有一位鄉官，姓水名居一，表字天生，歷官兵部侍郎，爲人任氣敢爲，到也赫赫有名。只恨年將望六，夫人亡過，不曾生得子嗣，止遺下一個女兒，名喚冰心，生得雙眉春柳，一貌秋花，柔弱輕盈，就象連羅綺也無力能勝。及至臨事作爲，卻有才力，賽過須眉男子。

19) 十五六歲時，父母便要與他結親，他因而說道：“孩兒素性不喜偶俗，若是朋友，合則留，不合則去可也。夫婦乃五倫之一，一諧伉儷，便是白頭相守；倘造次成婚，苟非淑女，勉強周旋則傷性，去之擲之又傷倫，安可輕議？萬望二大人少寬其期，以圖選擇”。父母見他說得有理，便因循下來，故年將二十，尚未有配，他也不放在心上。

20) 這水居一愛之如寶，因在京中做官，就將冰心當作兒子一般，一應家事都付與他料理，所以延至一十七歲，尚未嫁人。

할 원인으로 작용한다. 바로 이때 ‘아버지의 위기’라는 서사의 모티프가 상황을 전복시키는 계기가 된다. 철중옥의 아버지가 모함으로 투옥된 것처럼, 수빙심의 아버지 역시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병부시랑에서 파직되고 변경으로 파견된다. 이는 혼인이 아닌 또 다른 계기로 인한 수거일과 수빙심의 공간적 분리 기제로 작용하고, 유가적 명분상 숙부인 수운이 수빙심의 대사에 개입할 개연성을 확보한다.

철중옥이 아버지의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성을 보여준 것처럼, 수빙심은 바로 아버지의 위기가 초래한 자신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내재하고 있는 능력의 양상을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수운은 수거일이 사라지자 바로 명문 공자인 과기조(過其祖)와 수빙심을 혼인하도록 계락을 꾸민다. 수빙심은 삼촌의 계락을 간파하고²¹⁾, 이를 역이용하여 과공자와 수운의 딸이 혼인하도록 상황을 뒤집는 데에 성공한다.

이에 따라 수빙심에게 ‘아버지의 위기’라는 서사 모티프는 서사 인물의 개성을 제시하는 측면, 주변 인물(수운, 과기조)의 관계 설정 및 수빙심과 주변 서사 공간의 연결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모티프가 각각 남성 주동 인물과 여성 주동 인물에게 되풀이하여 작용하는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철중옥에게 아버지의 위기라는 모티프가 서사 공간을 이동하는 기제로 작용한 반면, 수빙심에게는 방어적으로 현재의 공간에 더 철저하게 귀속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의 활동성에 대한 차이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철중옥을 수빙심의 주변으로 이동시키면서, 둘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공간의 귀속력이 두 남녀 사이의 강력한 연계성을 견인하도록 하는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서사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위기를 통해 두 인물 모두 비범한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이를 공적인 선과 대의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이른바 ‘협의(俠

21) 『호구전』 서사에서 수빙심은 거의 모든 국면에서 상대방의 계락을 미리 파악하는 능력을 보인다.

義)’를 가진 인물이라는 공통적 개성이 부각된다. 이는 향후 서사에서 두 남녀가 각각 재자와 가인의 형상을 담보하고 있으나 협의 인물의 독특한 특징을 더욱 많이 표출하게 되는²²⁾ 인물 개성을 구현하는 바탕이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철중옥은 이후 자신의 애정 실현을 보조하고 협력하는 위패와의 만남을 갖게 되고, 수빙심은 자신의 애정 실현을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수운과 과기조와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 맥락을 형성한다.

또한 이 모티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황제’라는 통치자가 연출하는 정치 행위의 이중적 양상과 그것이 담지하는 정치사회에 대한 모순적 인식이다. 앞서 결과적으로 황제의 행동도 바꾸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만 내놓고 마는 비간과 같은 충간에 대한 철중옥의 심리 묘사를 통해 다소 허무주의적인 정치적 태도의 일단을 확인한 바 있다. 『호구전』이 묘사하는 전조(前朝), 즉 명나라의 행정은 충직한 철중옥의 아버지를 투옥하고, 수빙심의 아버지를 파직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철중옥이 아버지가 비간과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언하려 하고, 그가 황제의 성지를 갖추었지만 한편으로는 구리망치가 상징하는 자신의 사적 능력에 의지하여 위기를 돌파하려 했던 행동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황제는 또한 성지를 통해 철중옥 부친의 누명을 벗기고, 그를 복권하는 판단력과 결단력을 갖추고 있다. 1회에서 황제의 최종적 판단력을 기대하고 그것이 하나의 대단원(철어사의 복권)으로 작용하는 서사의 흐름은 최종적 국면에서 또 다른 복선적 장치였음이 드러난다.

여기까지의 서술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위기’라는 서사 모티브가 남성 인물 철중옥과 여성 인물 수빙심에게 작용한 효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김명신, 『『好逑傳』主人公의 俠義의 性格에 대한 小考』, 『中國小說論叢』, 제15집, 2002, 165쪽.

‘협의제자’ 형상의 구현	‘아버지의 위기’	‘협의가인’ 형상의 구현
공간 이동의 동력		공간 귀속의 동력
예정 협력자와의 만남		예정 방해자와의 만남
철중옥(鐵中玉)		수빙심(水氷心)

표 1. ‘아버지의 위기’ 서사 모티프의 작용 양상 비교

2.2. 복선 효과의 연쇄적 중첩과 액자식 서사 구조의 형성

『호구전』에서는 하나의 고사(故事)가 해당 회목의 서사를 전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이후 고사의 서사적 맥락을 예지하는 복선적 역할을 하며, 이것이 연쇄적으로 중첩되어 일정 정도의 편폭을 가진 서사를 전개하는 동력을 제기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서사의 서두에 등장한 해당 사건이 서사 전체의 결국(結局)을 매듭하는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서사를 해당 고사의 프레임 내부로 귀속하는 액자식 서사 구조를 형성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는 앞서 제시한 『호구전』 1회의 철중옥과 위패의 만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중옥은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사로 가는 도중에 위패를 만나게 되며, 거기서 그의 신분과 그가 처한 위기의 내용을 듣게 된다.

소제는 위패이며, 천한 (저의) 자는 유부(柔敷)입니다. 오늘 불행하게도 이 강포와 약탈의 화를 당하여, 자결을 하려 했으나, 홀어머니가 계시기에, 은근히 참으려 하다가, 또한 이 밝고 영명한 임금의 때를 맞이했으니, 하물며 황제 계신 도성(輦轂之下)에서, 어찌 귀족 자체가 그 간악함으로, 민간의 약혼한 처자를 강점하여, 조정의 강상 윤리를 문란하게 하고, 정실을 달갑지 않음을 용납하겠습니까. 어젯밤 밤새 망설이다가, 방문 한 장을 만들어, 오늘 상경하여, 이 가난한 목숨을 걸고, 6부 6과 13도 각 관아에 가서 그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²³⁾

도성의 여론을 환기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위패의 말과 그가 작성한 탄원서의 내용을 본 철중옥은 그의 약혼자를 강탈한 이가 바로 대궐후임을 알게 되고, 이는 주요 귀족과 관계된 일기기에 탄원서를 황제가 직접 읽도록 전달하지 않고 관리들 손에 돌게 된다면 특별한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충고한다.²⁴⁾

이들의 대화를 통해 앞서 비간의 고사를 읽으며 철중옥이 드러낸 당시 정치 현실과 위정자들에 대한 불신과 황제의 판단력에 대한 기대라는 모순된 이중적 정치 의식이 다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위패에 대한 철중옥의 충고는 거리두기나 무관심이 아닌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바탕으로 그의 억울한 처지가 효과적으로 해소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위패와의 만남 이전의 철중옥에 대한 개성 묘사의 흐름과 일치한다.

위패와의 만남과 위패의 위기는 철중옥에게 일차적으로 그가 감지한 아버지의 위기가 현실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위패가 상경해서 시도하고자 했던 행동, 도성의 각 행정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를 시행한 결과로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된다. 어사 직분에 충실한 결과가 투옥이라는 서사의 전개는 아버지와 위패에 대해 철중옥이 내린 예측과 판단력이 올바른 내용이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해당 고사는 독자들에게 철중옥의 면모에 대한 서술자의 묘사가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하는 효과를 거둔다. 또한 철중옥은 위패의 처지를 해결하는 것이 곧 자신의 아버지가 마주한 위기를 해소하는 것과 불가분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위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말했던 근본적인 해결책, 곧 해당 사건의 실상을 황제의 ‘어람(御覽)’에 놓이게 하기 위한 행동의 당위성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대

23) 小弟韋佩，賤字柔敷，今不幸遭此強暴劫奪之禍，欲要尋個自盡，又奈寡母在堂；欲待隱忍了，又現當此聖明之朝，況在輦轂之下，豈容紈袴奸侯，強占人家受聘妻女，以敗壞朝廷之綱常倫理、情實不甘。昨晚躊躇了一夜，因做了一張揭貼，今欲進京，拚這一條窮性命，到六部六科十三道各衙門去告他。

24) 此揭帖做得盡情聳聽，然事關勳爵，必須進呈禦覽，方有用處。

쾌후의 집에 성지와 구리 망치를 들고 소요를 벌여 한원 가족을 구출한 철중옥의 행동은, 단순한 치기가 아니라 황제의 어람에 놓일 만큼의 과급력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위패와의 만남은 철중옥의 인물 형상을 강화하는 서사적 효과와 경기(京畿) 지방에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혼기를 놓친 뛰어난 용모를 지닌 협의 재자 철중옥의 명성을 도성에 전하게 하는 극적 계기로 작용한다.

1-2회를 거치며 상술한 서사적 효과를 획득한 위패와의 만남 고사는, 5회에서 철중옥이 수빙심의 위기를 해결하는 복선적 연결고리로 재등장한다. 앞서 수빙심과의 혼인 계약에서 실패를 경험한 수운과 과거 조는 모친의 성묘에 나선 수빙심을 납치하려는 계획마저 이를 감지한 수빙심이 모면하고 은둔해버리자, 부친이 복직했다는 거짓 성지로 수빙심을 불러내어 강제로 혼인하려는 계약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결국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 수빙심은 산동 지역으로 이동한 철중옥과 조우한다. 이 첫 만남에서 이상을 감지한 철중옥은 가마 행렬을 현청으로 데려간다.

여기서 위패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철중옥이 활용한 황제의 성지는 해당 위기 국면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나, 과거 조와 수운이 활용한 성지는 결과적으로 철중옥과 수빙심의 만남을 중개하는 수단으로 변모한다. 또한 위패의 약혼자를 강탈한 쾌후의 입장에서 상황을 왜곡했던 도성의 관리들같이, 처음 현의 지방관도 과거 조의 명성을 보고 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 이 때 철중옥은 이러한 지방관의 태도를 비판하는데, 그 어조에서 지방관은 부임전 도성에서 근무할 때 도성을 떠들썩하게 한 철중옥이 자신의 눈앞에 서있는 사람임을 인지한다.

현존은 철공자가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여기는 조정에서 세운 공당인데, 너는 누구기에, 감히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가!"라고 책상을 치며 크게 화를 냈다. 철공자는 대소하며 "이 현의 잘난 공당이든, 귀족의 소굴

이든, 황제께서 하사하신 성역이든, 나 같은 서생이 쳐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낸 적이 있는데, 감히 나를 건방지게 군다고 말하는 사람 없었다!"고 말했다.

원래 이 지현은 산동에 새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성에 있을 때 철공자가 대궐후 양한당에 쳐들어간 일을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 철공자가 말하는 내용이 그것과 비슷하자 크게 놀라서, "그렇다면 노형이 설마 철도원의 장남 철정생이 아니신가?"라고 물었다. 철공자는 "지현께서 이미 이 서생의 부족한 이름을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시니, 의당 삼가야 하십니다."라고 말했다.²⁵⁾

이를 인지한 지현은 입장을 바꾸어 둘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철중옥과 수빙심의 사이를 중개하여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지게 하는 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위패와의 만남은 철중옥의 명성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철중옥이 수빙심의 위기를 원만하게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뿐만 아니라, 3회 이후 두 재자와 가인의 서사 공간에서 또 다른 애정의 협력자와의 연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한편 두 남녀의 애정 형성과 전개 국면에 그 여성을 탈취하려는 현실의 권력자가 개입하고, 이 권력자의 방해 시도가 황제의 성지를 통해 무력화되고 두 남녀의 애정이 성취된다는 위패와의 만남 고사의 기본 플롯은, 이후 철중옥과 수빙심의 애정의 서사적 전개가 갖는 기본적인 속성을 앞서 제시한 복선적 장치로 기능한다. 즉 위패는 철중옥의 복선적 인물이며, 대궐후는 과기조의 복선적 인물이다. 차이가 있다면 위패는 육례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혼인 관계의 대상인 반면, 철중옥은 후술하게 될 '선간후취'라는 당시로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명분을 획득하지 못할 수 있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25) 縣尊聽見鐵公子嚷得不成體面，便也拍案大怒道：“這是朝廷設立的公堂，你是什麼人，敢如此放肆！”鐵公子復大笑道：“這縣好個大公堂，便是公侯人家，欽賜的禁地，我學生也曾打進去，救出人來，沒人敢說我放肆！”原來這個知縣，新選山東不久，在京時，鐵公子打入大夫侯養閑堂這些事，都是知道的。今見鐵公子說話相近，因大驚，問道：“如此說來，老長兄莫非就是鐵都院的長子鐵挺生麼？”鐵公子道：“老先生既知道我學生的賤名，要做這些不公不法之事，也該收斂些！”

윤리적 명분과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철중옥과 수빙심의 애정 방해 기제는 철중옥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위패의 위기와는 본질적 속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위패의 위기를 해소했던 황제의 개입이 갖는 당위성과 기대의 효과를 더욱 부각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에 대해서도 후술하여 더욱 상세하게 논한다.

지금까지 위패와의 만남이 철중옥의 인물 개성을 강화하고, 철중옥과 수빙심의 만남에서 철중옥이 수빙심의 위기를 해결하여 그들의 관계가 형성하도록 하는 일차적 복선, 철중옥과 수빙심의 애정 흐름을 선행하여 제시하는 이차적 복선의 장치로 기능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사의 최종 국면에서, 이 고사는 철중옥과 수빙심의 애정을 방해하는 기제를 결정적으로 무력화하고 최종적으로 황제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서사 장치였음을 재입증한다.

앞서 산동의 지현이 처음 철중옥이 도성을 뒤흔든 인물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 철중옥과 수빙심의 인물됨을 확인한 후 두 남녀의 애정 성취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시도한 점을 설명한 바 있다. 과기조는 이런 지현을 새로운 지현으로 교체하고,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두 남녀의 관계를 도덕적 불륜으로 심판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교체한 지현이 바로 위패였으며, 위패는 과기조의 모든 시도를 무력화하여 애정의 협력자라는 자신의 서사적 사명을 완수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1회에서 철중옥이 자신에게 충고했던, 해당 사건의 내용을 황제가 친람할 수 있도록 직접 상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철중옥과 위패의 만남의 플롯은 최종적으로 『호구전』 전체 서사 플롯을 압축하게 된다. 첫 만남에서 철중옥이 위패의 위기를 해소하는 전개 흐름은 두 번째 만남에서 위패가 철중옥의 위기를 해소하는 전개 양상으로 역전하여 재현된다. 이를 통하여 철중옥과 수빙심의 애정 서사는 철중옥과 위패의 두 만남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호구전』 서사는 철중옥과 위패의 서사의 틀 안에 철중옥과 수빙심의 서사가 위치하는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육례의 과정

중 정혼의 절차를 완료한 위패의 애정이 봉착한 위기의 양상은, 철중옥의 경우에는 정혼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긴장이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적 지점이 되는 것으로 변주된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서 상술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흐름을 요약해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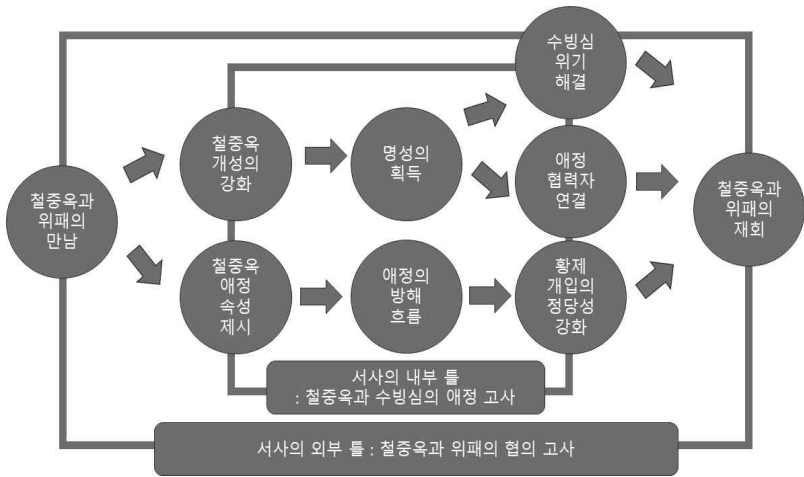


그림2 철중옥과 위패 만남의 서사적 연쇄 효과와 서사 구조의 틀 도식

2.3. ‘선간후취’ : 플롯 전개 of 기본 동력

여기에서는 앞서 단편적으로 제시했던 ‘선간후취’라는 당시의 예교적 터부(taboo)가 서사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다 본격적으로 규명한다. 고대 중국의 혼인 절차가 흔히 ‘육례(六禮)’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절차를 거친 혼인이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육례의 절차에서 또한 그 과정에서 혼인 당사자인 신랑 신부의 애정과 의지보다는 중매인을 통한 양가 부모의 의사 교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주지하는 바이다. 남녀가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혼인이 결정된다는 점, 양가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오가는 과정에서 심지어 서로 상면하지 못한 채 성혼 이후에나 서로를 인지하게 된다는 점은

통속 서사의 다양한 모티브로 활용해 왔다.

이 중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폐(納幣)는 일종의 ‘정혼(訂婚)’ 단계의 ‘四禮(사례)’로 구별한다. 이 정혼 절차를 거친 남녀는 이미 혼인 관계를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혼인의 일기를 정하는 청기(請期)와 오늘날의 결혼 예식에 해당하는 친영(親迎)의 성혼(成婚) 절차는 정혼의 자연적인 발전과정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육례의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혼인의 가장 큰 분기점은, 바로 이 정혼 절차의 매듭인 납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²⁶⁾

앞서 소개했던 『호구전』 서두의 위패 역시 한원의 딸과 납폐를 주고 받은 상황으로, 그녀와 이미 법적인 부부관계를 맺은 상태인 것이다. 대궐후의 행위는 따라서 자신의 권력을 빌미로 일반 백성의 정치(正妻)를 탈취했다는 명분적 약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애정 행위의 당사자와 방해자가 갖는 이러한 도덕적 우위가 철중옥과 과기조의 상황에서는 역전된다는 점은 앞서 간략하게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명분의 도치를 초래하게 된 ‘선간후취’의 기제가 각각 애정의 당사자인 철중옥과 수빙심의 내면적 심리의 흐름과 그들 외부의 환경과 갈등 촉발 및 해소 과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3.1. 주동 인물의 내적 갈등 기제

과학사(과기조)와 구태감이 두 사람은 번뇌를 이기지 못하고 묘책을 다시 생각했다. 과기조가 “그(철중옥)와 수 아가씨는 비록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친한 소문은, 이미 다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장가들고 시집가게 하는 것은, 힘이 드는 것 같으니, 그들이 지난날 투병하고 간호해 준 일을, 사사로이 정을 통한 것으로 하여, 위력 있는 어사를 시켜서, 한 줄기로 탄핵하게 하니, 바로 선간후취요, 인륜을 망치는 일이라 하니. 새삼 어르신(구태감)께서 손을 써주시기를 청할 것은, 예부가 이를 조사하도록 힘써주시고, 제가 역성현으

26) 葉楚炎, 『明清通俗小說婚姻敘事研究』, 三聯書店, 2019, 16~17쪽.

로 가기를 기다려 주시면, 지현을 시켜 그들의 투병과 간호의 지난 일을 조사하게 시켜, 탄원을 작성하게 하여, 양쪽으로 협공한다면, 그들은 자연히 두려워하여, 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²⁷⁾

‘선간후취’라는 용어는 위에서 인용한 『호구전』 17회의 대목에서 가장 명확하게 등장한다. 이 부분은 그동안 철중옥과 수빙심을 각각 다른 이들과 혼인하여 자연스럽게 헤어지도록 하고자 한 방해 전략이 모두 무력화하자, 이들의 관계가 인륜적 명분에 어긋남을 고발하여 두 남녀를 이별시키려는 최후의 계략을 전개하는 내용이다.²⁸⁾

이들이 말하는 ‘투병하고 간호하는 지난날’은 철중옥이 과기조와 합세한 승려(독수화상獨修和尚)의 요리를 먹고 병에 걸리자, 수빙심의 집에서 와병하고 그런 철중옥을 수빙심이 간호한 6회의 사건을 말한다.

수빙심이 철중옥을 간호하여 그의 회복을 도운 것은 그 이전 철중옥이 수빙심을 위기에서 구한 것에 대한 보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병이 든 철중옥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도록 그의 종자에게 전하는 수빙심의 발언은 이 상황이 갖게 될 폭발성을 예고한다.

당신 주인은 예의와 의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딸 혼자 있는 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혐의를 피하고자 죽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 주인이 정말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영웅이 일할 때는, 자기 혈기대로 해도 안 되지만. 썩은 선비 풍조도 따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

27) 二人不勝煩惱，重思妙計。過學士道：“他與水小姐雖傳說未曾同床，然結親的名聲，人已盡知。今要他另娶另嫁，似覺費力，莫若只就他舊日接回去養病的事體，裝點做私情，央一個有風力的禦史，參他一本，說是先奸後娶，有汙名教，再求老公公在中尋個手腳，批准禮部行查，再等我到歷城縣，叫縣尊查他養病的舊事，出個揭帖，兩下來攻，他自然怕醜，定要離開。”仇太監道：“等他離開了，我再請旨意與他結親，難道又好推辭！”二人算計停當，便暗暗行事不題，正是：試問姤何爲，總是心腸壞。

28) 당송 이후 지방관들은 혼인에 대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혼인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 혼인을 무효로 하고 서로 갈라서도록(離之) 판결하였으며, 선간후취 역시 이러한 위법한 혼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최해별, 「離之: 南宋 시기 지방관의 ‘違法’ 혼인에 대한 인식과 판결」, 『東洋史學研究』, 第153輯, 2020, 46쪽.

다.²⁹⁾

해당 대목을 통해 수빙심이 상대방의 의도를 간과하는 예지력, 스스로의 혈기를 다스리는 절제력, 그리고 인간관계의 실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허례에 집착하는 예교의 구속에 집착하지 않는 융통성과 과격적인 개성을 영웅의 면모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그녀가 이러한 성품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지점에서 수빙심은 이전 시기 재자가인 서사의 가인들과는 구별되는 협객의 풍모를 지닌 여성 영웅의 형상을 구비하게 된다.³⁰⁾

그러나 수빙심의 이러한 의도는 그가 철중옥이 봉착한 위기를 해결하는 여협의 형상을 부각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당시 사회의 애정과 혼인에 대한 일반적 관념에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서로서로 위기를 구원하며 두 남녀의 애정은 깊어가지만, 그들의 정은 애정의 도피(私奔)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경우, 적극적이고 과격적인 수빙심의 형상은 명칭 서사에 나타나는 애정 도피의 두 유형³¹⁾, 즉 여성이 몰래 남자를 찾아가는 유형의 당사자가 되거나 남녀가 함께 언약하여 도피하는 과정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바 아버지 수거일이 변경으로 간 상황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삼촌 수운의 계략과 존재를 인지하는 수빙심은 애정을 위해 도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은 수빙심의 본거지인 산동에 머물러야 할 상황이다. 철중옥의 입장에서는 자신으로 인해 수빙심이 혼인의 인륜을 저버린 부도덕한 여성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없게 됨을 예지하게 된다. 이 지점이 바로 철중옥이 둘 사이의 애정과 혼인의 성사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내적 갈등의 실마리

29) 你相公是個禮義俠烈之人，莫要說我是個孤女之家，寧死避嫌疑不肯來，你相公若果然有此說，你可就說我說，英雄做事，只要自家血性上打得過，不必定做腐儒腔調。況微服過宋，聖人之處患難，未嘗無權。我在此等候，不可看做等閑。

30) 馬 寧, 「“劍膽琴心”與“善慮多謀”：『好逑傳』中的新佳人形象」, 『品位·經典』, 2022年 第20期.

31) 葉楚炎, 『明清通俗小說婚姻敘事研究』, 三聯書店, 2019, 176쪽.

로 작용한다. 향후 서사의 전개에서 철중옥은 수빙심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는 협객의 풍모를 드러내지만, 이후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는 양가의 부모와 그들의 인격을 흠모하게 된 주변 인물들의 혼인 권유에는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모순된 인격을 드러낸다.

철공자가 듣더니, 한참 있다가, 비로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이렇게 아름다운 짝을 내고는, 어찌하여 또 이런 악연을 짓게 하는가? 어찌하리, 어찌하리!”

(중략) 결혼은 명교와 관련이 있다. 지나고 나서 그 마지막을 바로 잡으려 한다면, 반드시 그 시작을 바로 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잘못된) 처음을 택하여, 재색을 탐하려 한다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니, 그것은 평생의 흠이 될 것입니다. (중략) 다만 제가 수 아가씨와 인연이 없음이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가운데 우연히 알게 되어, 서로 의례를 갖추어 만나지 못했으나, 의혹과 의심의 사이에 처할 때마다, 정절은 늘 지켜왔음을 자부합니다. 지금 만약 이 일(혼담)을 성사시킨다면, 이전의 의협은, 모두 의도가 있었던 것이 되니, 비록 규각의 좋은 반력을 잃는다고 해도, 명교의 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³²⁾

철중옥은 자신과 수빙심이 지금까지 지켜온 정절과 협의의 순수한 가치가 혼인을 통해 퇴색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를 단지 자신의 사회적 위상의 훼손을 경계하는 위선적 남성의 태도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패와의 고사에 대해 황제 개입이 없이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움을 깨달았던 철중옥의 판단력이 자신의 애정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미리 예측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중옥이 수빙심과의 애정에 대한 내면적인 절제의 기제로 활용한 ‘선간후취’에 대한 경계 의식은 바로 이 부분 첫머리에 제시한

32) 鐵公子聽了，竟呆了半晌，方歎一口氣道：“老天，老天！既生此美對，何又作此惡緣？奈何，奈何！”… 婚姻大事，名教攸關，欲後正其終，必先正其始。若小擇其初，草草貪圖才貌，留瑕隙與人談論，便是終身之玷。”… 但恨孩兒與水小姐無緣，遇之於患難之中，而相見不以禮；接之於嫌疑之際，而貞烈每自許。今若到底能成全，則前之義俠，皆屬有心，故寧失閨閣之佳偶，不敢作名教之罪人。

과기조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애정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이들의 행동 기제로 작용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2.3.2. 외연적 갈등 생성과 해소의 동력

철중옥은 앞서 말한 예교의 위반을 명분으로 양가 부모의 혼담 제의를 거절하지만, 철중옥의 능력에 호감을 느낀 수거일과 수거일 집안과의 혼사를 거부하지 않는 부모의 의사로 수빙심과 혼인을 치르게 된다. 혼례를 통해 외형상 선간후취의 처지에 놓이게 된 두 남녀가 한 선택은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혼전의 관계, 즉 협의를 공유하는 지기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³³⁾ 그리고 과기조의 계약은 결국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이미 투병하고 간호했던 6회의 사건 당시에 서로 통정을 하였으며, 결국 선간후취의 부도덕한 관계이니 서로 맺어질 수 없다는, 궁극적으로 육례를 거친 혼인도 무효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 통치 기제의 실상은 이들이 계약이 충분히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호구전』 서사는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대쾌후가 성혼한 여인을 강탈하려 시도하고, 그를 비판하는 어사는 투옥된다. 행정 실수로 능력 있는 중앙 관료는 파직되어 변경으로 쫓겨간다. 지방 관료는 최초에 해당 지역의 기득권 세력과 밀착하여 의지할 곳 없는 여인을 억지로 결혼하려는 시도를 옹호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왜곡된 모습은 두 가지 수단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는 철중옥과 수빙심의 능력과 인격이며, 두 번째는 상황을 파악하게 된 황제의 판단력이다. ‘선간후취의 당사자’라는 심판은 철중옥이 경계한 대로 그동안 축적해 온 두 남녀의 신망을 무력화할 수밖에 없는 족쇄로 작용한다. 결국, 과기조의 계약과 기약 없이 실질적 부부로 맺어지지 않는 철중옥과 수빙심의 처지는 황제의 강력한 직

33) 話說鐵中玉與冰心小姐自成婚之後，雖不曾親共枕衾，而一種親愛悅慕之情，比親共枕衾而更密

접 개입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를 강화하게 한다. 그리고 황제의 개입을 유도하는 인물이 바로 같은 방식을 통해 철중옥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던 위패라는 전략적 설정은 앞서 제시한 바 있다.

위패를 자신의 계략에 활용하려 했던 과기조와 태감의 일이 실패하게 되면서, 황제는 이 사건의 존재를 확인한다. 황제는 여기서 세 절차를 통해 철중옥과 수빙심의 사건에 개입한다. 먼저 사건 당사자들에게 스스로의 의견을 서술하여 진상하게 하는 것이다. 철중옥이 위패의 사건을 해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진상이 ‘어람(御覽)’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때 황제는 각각 과기조, 철중옥, 수빙심, 철영, 수거일의 상소를 전달받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입체적 면모를 보여준다.

둘째, 황후에게 수빙심의 처녀성을 진단하게 한 것이다. 이는 대신들이 ‘그들이 육체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결국 선간후취의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리하지 않고 순결을 지켰다면 끝까지 예교를 지키고자 하는 진정성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³⁴⁾고 건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대목에서 철중옥의 판단이 결국 편협하고 소극적인 것이 아닌 예지력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입증하게 된다.

황제는 상소를 통해 애정을 방해해 온 세력, 애정의 당사자, 육례 이전에 이미 상면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어온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견해를 청취하였고, 대신들의 조언과 황후의 진단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와 개연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황제는 심지어 애정 방해 세력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³⁵⁾ 두 남녀의 인격과 능력을 다시 제시한다.³⁶⁾ 이

34) 然一爲孤男，一爲寡女，同居共宅，正在貞淫莫辨之時，倘曖昧涉私，則前之義俠，皆付之流水。若果如縣臣所稱，窺探而無欺暗室，則又擅千古風化之美，而流一時名教有光者也。

35) 서사 전체에서 특히 수빙심의 숙부 수운은 조카의 예지력과 판단력을 비롯한 능력을 인정하며, 숙질 관계에 기반한 서로의 도리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전형적 악인과는 다소 거리 있는 형상을 보인다. (물론 숙질의 도리를 수빙심의 강제 혼인과 상속권 확보라는 자신의 목표 실현에 활용하는 면모도 갖추고 있다.)

36) 황제는 이때 대궐후의 사례, 그리고 본 연구에서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철중옥의 능력과 협의를 드러내고 또한 수거일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하게 된 무장

로 인해 이들이 다소간의 예교적 결격에도 합법적 혼인 관계를 통해 정당한 부부로 맺어질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보증하여, 이들에 대한 모든 저항과 억압의 기제를 무력화하고 해소하는 대단원의 결국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명청 통속 서사에서 황제가 대단원의 서사에 최종적으로 개입하여 남녀 간의 애정을 억압하고 방해했던 기제를 무력화한 형상을 도식적으로 되풀이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청대 재자가인 서사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플롯 전개 of 일단으로, 서사 기교적 측면에서 재자가인 서사의 한계 중 하나로 지적된 측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호구전』의 황제는 재자가인 서사를 비롯하여 특별한 개성적 서술 없이 직책으로 기능해 온 중국 고전 서사에 등장하는 황제와는 구별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물론 애정 서사의 전개를 위한 복선이기는 하지만 『호구전』에서 황제는 남녀 사이의 애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행정과 통치의 측면에서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준다. 『호구전』의 황제는 상람(上覽)을 거치기만 하면, 공평하고 밝은 해결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한다.

『모란정(牡丹亭)』의 황제가 두여량과 유몽매의 애정 실현 과정에만 등장하고 그의 성지가 세 번 거부되는 점, 기타 『모란정』의 왜곡되고 불합리한 사회적 환경을 서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통치자로 기능하는 측면을 보여주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황제가 무능한 명말의 황제를 표상한다는 해석³⁷⁾을 상기하면, 『호구전』의 황제는 비록 통치 세력의 농단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개혁하지는 못하지만, 극단적으로 왜곡된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 대중적인 처방은 정확하게 집행하는 능력을 갖춘 군주로 묘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선간후취’는 『호구전』 전체 서사를 남녀 사이의 애정과 사회 명분의 충돌이라는 하나의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가운데,³⁸⁾ 이를

후효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미 자신이 철중옥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황제는 이미 이 두 사례들을 바탕으로 철중옥에게 관직을 수여했으며, 이는 철중옥과 수빙심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37) 萬斌生, 「湯顯祖忠君思想之衍變及湯劇皇帝形象」, 『江西社會科學』, 1994年 第10期

회피하고 모면하려는 철중옥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여 외양적으로 다양화한 인물 형상을 내면적으로 심화하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이를 탈피하려는 주동 인물과 이를 활용하려는 보조 인물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제로 활용하여 18회의 서사 흐름의 긴장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나아가 애정을 회구하는 남녀와 그를 인정해 준 집안도 모면할 수 없었던 예교적 굴레를 황제의 개입과 판단력으로 해소하게 되는 도식을 통해, 통속 서사의 전형성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서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의에 대한 새로운 각도를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지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3. 결 론

본 연구는 재자가인 소설 『호구전』을 대상으로 해당 서사의 구조를 구축한 맥락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호구전』은 문인적 풍모를 지닌 재자와 가인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애정을 형성하고 그들의 애정 성취를 통해 결과적으로 입신양명의 대단원을 이룬다는 재자가인 서사의 기본 전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두 남녀는 스스로의 역량을 통해 주변 인물들이 겪는 사회적 고난을 해결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는 협의 지사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 해당 지점은 이런 지점에서 기존의 재자가인 서사의 전형성과 일부 구별되며 『호구전』의 장르적 성격을 단순한 애정 서사가 아닌 협의 서사와 애정 서사의 성격이 중첩되는 협의애정 서사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끌어내는 배경이 된다.³⁹⁾

38) 郭海峰, 「試論『好逑傳』中“情”與“禮”的碰撞」, 『黃岡師範學院學報』, 第37卷 第4期, 2017.

39) 金명신, 「『好逑傳』主人公의 俠義的 性格에 대한 小考」, 『中國小說論叢』, 제15집, 2002, 164쪽.

해당 서사는 서두에서 두 남녀가 순차적으로 ‘아버지의 위기’를 겪으며 첫째 인물의 개성 발휘, 둘째 서사 공간과의 이동과 결속, 셋째 주변 인물 형상 부각과 관계의 형성을 통해 서사 전개와 실마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호구전』은 철중옥이 어려움을 겪은 위패를 도와주고 다시 위패가 철중옥을 보은하는 협의 서사의 틀 안에, 철중옥과 수빙심이 위패의 고난을 재현하는 애정 서사를 전개하는 액자식 구성을 통해 복선적 장치의 연쇄적 활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체적인 서사의 열개를 구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구전』이 현실 사회의 안정과 지속의 담보를 명분으로 하는 예교와 남녀 사이의 본질적 욕망에서 기반하는 자연스러운 애정이 충돌하는 상황을 ‘선간후취’의 기제를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변주하여 서사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는 또한 현대인의 시선으로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⁴⁰⁾, 애정을 가진 남녀가 자신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혼인하는 과정은 일정한 편쪽을 가진 서사적 설명을 통해, 방해와 좌절의 시도를 극복하며 결말을 이루어내는 개연성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전통적인 시대적 관점으로 조망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즉 가장 원시적이고 지속적인 혼인의 양태가 오히려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이 되는 극적 긴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호구전』 서사가 제시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호구전』은 진정한 정이 죽음마저 초월했던⁴¹⁾ 명대 『모란정』의 주제의식이, 청대 강희제의 시기에 이르러 예교를 지키기 위해 성혼 이후에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황제의 밝은 판단을 의지하며 친람의 시기까지 기다려

40) 葉楚炎, 『明清通俗小說婚姻敘事研究』, 三聯書店, 2019, 176쪽.

41) 『모란정』의 저자 탕현조가 서두에 밝힌 내용으로, 정이 지극하면 죽음을 초월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정이 아니라고 한 부분을 뜻한다. “정은 생기는 줄 모르나 한 번 가면 깊어지니, 산 자도 죽을 수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살아서 죽어보지 못하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지극한 정이 아니다. 꿈속의 정이라 해서 어찌 진정이 아닐까. 세상에 꿈속의 사랑이 어찌 적을까.” (情不知所起, 一往而深, 生者可以死, 死可以生. 生而不可與死, 死而不可復生者, 皆非情之至也. 夢中之情, 何必非真, 天下豈少夢中之人耶?) 「牡丹亭題詞」

은 철중옥과 수빙심의 정치적 승리를 성취하는 것으로 변모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신들과 의논하며 황후를 동원하는 황제의 지혜가 전조의 관리들과 배치되는 사회 현실의 서술은 청대 재자가인 서사가 잠재하고 있는 협의, 애정과는 또 다른 결의 정치사회 의식의 일부분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명을 통해 명칭 서사에서 도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황제 형상에 대한 고찰과 또한 명칭 교체 시기에 등장한 재자가인 서사의 진정한 사회적 의의 일단을 규명하는 작업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Abstract]

A Study of the Narrative Structural Features of the Qing Dynasty the Talented and the Beautiful Novels *Hau kiou choaan*

Park, Jooyeon · Joo, Junyoung(Korea University)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cholarly inquiry is to conduc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narrative architecture inherent in *Hau kiou choaan*, a seminal component of the ‘Talented and the Beautiful’ anthology, which materialized during the Qing Dynasty in China. The study is fundamentally oriented towards elucidating the distinctive attributes and significations embedded within the chosen work. Cognizant of the limitations intrinsic to extant scholarship, this endeavor is inherently geared towards a meticulous deconstruction of the narrative structure permeating *Hau kiou choaan*.

Preliminarily, the investigation endeavors to unravel the shared paternal crisis encountered by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This study also delves into the intricate stratagems employed to engender an amplification of character delineation through the iterative and superimpositional deployment of recurrent motifs. In tandem, the investigation meticulously dissects the propellant underpinning the entire narrative construct – the concept of ‘preceding and following’. Serving as

the fulcrum for thematic articulation and plot advancement, the notion of 'preceding and following' assumes an elemental role within the narrative frame work, while concurrently affording the scope for a reevaluation of the categorization of autogenous literary productions that surfaced during the juncture of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eras.

The study proceeds by scrutinizing salient dimensions. Primarily, it orchestrates an inquiry into the sequential navigation of a 'father's crisis' by the male and female personae. This crisis serves as the fulcrum for the evolution of the narrative tapestry, facilitated by an orchestration of character portrayal, the choreography of spatial dynamics, the accentuation of peripheral personag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rpersonal entanglements. In a subsequent vein, within the rubric of a consultative narrative framework, whereby Tie Zhongyu lends succor to Wei Pai in his tribulations, reciprocated by Wei Pai's intervention in Tie Zhongyu's dilemmas, a framed compositional framework unfurls. Within this compositional prism, the liaison between Tie Zhongwei and Sui Bingxin unfurls as a romantic narrative, redolent of Wei Pai's anguish. This deployment underscores the foundational precept that the overarching narrative schema rests upon the serial assimilation of recursive elements. As a tertiary pursuit, this study accentuates the pivotal thrust of *Hau kiou choaan* - the transmutation of the conflict between decorum and sentiment into variegated manifestations through the conduit of the 'preceding and following' paradigm.

By doing so, the study seeks to excavate an unexplored facet of the politicized love narrative, which heretofore has been relegated to a diachronically transitional role in the sculpting of the collective amatory narrative. This analytic trajectory, in turn, aspires to bestow a nuanced and multifaceted discourse upon the existent expanse of scholarship concerning the ‘Talented and the Beautiful’ literary milieu – a domain that has hitherto been reproached for its perceived doctrinal inflexibility and its perceived incapacity to rupture the confines of entrenched archetypes.

Key words : *Hau kiou choaan*, the Talented and the Beautiful Novels, narrative structure, consultation novels, love novels, Chinese Traditional Wedding, Emperor Kangxi

[참고문헌]

■기본자료

- (清)名教中人, 『古本小說集成(581) : 好逑傳 影印本』,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0.
(清)名教中人, 『好逑傳 : 中國禁毀小說百部』, 中國戲劇出版社, 2000.
林辰 主編, 『才子佳人小說集成 2: 俠義風月傳』, 沈陽 : 遼寧古籍出版社, 1997.

■단행본

- 向 概, 『世情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8.
葉楚炎, 『明清通俗小說婚姻敘事研究』, 三聯書店, 2019.

■논문 및 기타 자료

- 김명신, 「清代 俠義小說의 研究概況」, 『中國小說論叢』, 제14집, 2001.
_____, 「『好逑傳』主人公의 俠義의 性格에 대한 小考」, 『中國小說論叢』, 제15집, 2002.
_____, 「『好逑傳』과 『박씨전』의 여성영웅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9집, 2009.
김명신·민관동, 「『好逑傳』의 유입과 번역적 특징」, 『中國小說論叢』, 제37집, 2012.
박영희, 「17세기 才子佳人小說의 수용과 영향 : 『好逑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4집, 1998.
송성욱, 「17세기 중국소설의 번역과 우리소설과의 관계 : 『옥교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7집, 2001.
안중수, 「괴테와 중국철학」, 『哲學論叢』, 제69집, 2012.
이혜순, 「『好逑傳』 연구」, 『韓國文化研究院論叢』, 제30집, 1977.
정현선, 「俠과 情의 交錯融合 - 『好逑傳』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제53집, 2013.
최해별, 「離之: 南宋 시기 지방관의 ‘違法’ 혼인에 대한 인식과 판결」, 『東洋史學研究』, 第153輯, 2020.
최형섭, 「유럽에 전해진 중국 소설(1735-1840) -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제102집, 2020.
하재철, 「王實甫 雜劇에 나타난 婚姻觀과 夫婦觀 小考—『西廂記』와 『破窯記』를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제34집, 2007.
常雪鷹, 「論清代小說『好逑傳』의類型歸屬」, 『北京教育學院學報』, 第32卷 第2期, 2018.
郭海峰, 「試論『好逑傳』中“情”與“禮”的碰撞」, 『黃岡師範學院學報』, 第37卷 第4期, 2017.
馬 寧, 「“劍膽琴心”與“善慮多謀” : 『好逑傳』中的新佳人形象」, 『品位·經典』, 2022年 第

20期.

宋常立, 「試論『好逑傳』」, 『明清小說研究』, 1985年 第2期.

孫惠欣·王彤彤, 「『好逑傳』中女性意識之解讀」, 『牡丹江大學學報』, 第32卷 第6期, 2023.

孫偉航, 「『好逑傳』中的撥亂小人敘事」, 『九江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40卷 第4期, 2021.

萬斌生, 「湯顯祖忠君思想之衍變及湯劇皇帝形象」, 『江西社會科學』, 1994年 第10期.

汪德羞, 「『好逑傳』反映了明代後期“情”與“理”的鬥爭」, 『昭烏達蒙族師專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1991年 第1期.

文 頊, 「『好逑傳』中水冰心形象的時代特徵」, 『長沙水電師院學報(社會科學版)』, 1990年 第4期.

張浩·李躍忠, 「論20世紀以來的『好逑傳』研究」, 『常州工學院學報(社科版)』, 第39卷 第4期, 2021.